

남은 자들의 구원

본문 : 로마서 11장 1~12절, 열왕기상 19장 14~18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열왕기상19:14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 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15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16 그런 다음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17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18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로마서11:1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3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나를 위해 남겨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¹⁾들이 있습니다.

6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1) 부모님께서 먼저 공부한 후 자녀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에 멸망치 않고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신다. 이들은 고난 중에도 죄악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 두신 일차적인 목적은 이들의 구원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목적이 있다(창6:5-8; 출2장; 민14:29-30; 왕상19:18; 사10:20-22; 미2:12-13).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를 '남은 자'로 정의했다(롬9:27).

- 7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 8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흥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 9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칫상이 그들에게 덧과 울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 받게 하소서.
-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 있게 하소서."
- 11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 12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펼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금세 두려움에 빠집니다. 분노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광야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칠 천명을 남겨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극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 바울은 엘리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3. 구원은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한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4.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칫상이 덧이 되어 멸망합니다. 잔칫상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공'과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돈, 명예, 권력을 모두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5.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1. 현재 나와 우리 가족은 믿음으로 잘 견디는 남은 자인가요?